

겸손한 자를 들으시는 하나님

핵심 구절: "주님, 주님은 힘없는 자들의 소망을
아십니다.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0:17

선택한 성구:

시편 10:12-18

시편에서 1월의 핵심 구절을 모두 가져와서 이 2025
국제 성경 공부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어 축복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하나님이자 창조주이신 여호와에 대한
지혜, 위로, 위로, 격려, 헌신, 진심 어린 찬양이 담긴
풍부한 보고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겸손한 자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핵심 구절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구절은 주님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따라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 정의입니다." 18절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고아와 억눌린 자를 위해 정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땅의 사람'()은 더 이상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공과 13절은 이 압제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그들의 악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조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그 죄악된 본성에서 부패와 죽음을 수확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7-8

"오직 어리석은 자들만이 마음속으로 신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들의 행동은 악합니다." (시편 53:1). 악인들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이 정하신 사람으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시편 10:12-16; 사도행전 17:30 및 31

오늘 공과 18절에 나오는 "땅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소중히

32 새벽

여기는 것들에 대해 제한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속이고, 흠치고, 거짓말하고, 협박하는 것의 이점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크리스천은 이러한 지상의 본능과 싸우고 하늘의 마음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훈계를 따라 진정한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방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침입하여 도둑질하는 땅에 보물을 쌓아 두지 마십시오. 나방과 녹이 파괴하지 못하고 도둑이 침입하여 도둑질하지 않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십시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의 소망도 거기 있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6:19-21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 여러분, 손을 씻으십시오. 당신의 충성심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나뉘어져 있으므로 마음을 정결하게하십시오. ... 웃음 대신 슬픔이 있고 기쁨 대신 우울함이 있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들어 올려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6-10). 베드로는 야고보서의 말미에 "하나님의 강하신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돌보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라고 덧붙입니다. (베드로전서 5:6 및 7).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실 때 여러분의 겸손한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입니다.